

# 건축설계산업 세계 TOP5 수준으로 육성해야 한다

Architectural design industry should be fostered to be World Top 5



김창길 | Kim, Chang-gil, KIRA  
삼정환경 건축사사무소

경기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창우정 종합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 실무를 쌓았다. 주요 작업으로는 변동 글로리타워, 부산 락앤스티치공장, 박순용정형외과, 춘천감정리주택, 화성 조암리주택 등이 있다. 수상 경력으로는 2011년대한민국토목건축기술대상 우수상, 2012년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2012년경기도건축문화상 대상, 2012년신진건축사상을 수상하였다.

건축설계산업 살리기에 업계와 학계, 연구원, 정부가 함께 나선다고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은 건축설계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산·학·연·관 T/F팀(9개)을 구성하고, 지난 8월 9일(금) 킷오프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건축설계는 일자리 창출(제조업대비 1.9배)과 부가가치 창출(1.4배) 효과가 크고<sup>1)</sup>,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문화적 영향력이 높은 지식서비스산업으로 상해(중국), 두바이(UAE), 바르셀로나(스페인), 베를린(독일) 등은 건축분야의 발전을 통해 자국의 브랜드 가치를 제고하여 자국의 국가와 도시의 품격을 높였으나, 우리나라의 건축설계는 업체당 매출 기준으로 OECD 27개국 중 20위권 수준에 불과하며, 우리나라의 발주자들조차 상징성이 높은 대형 랜드마크 건축물은 외국 유명 건축사에게 설계를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롯데월드타워(KPF), 동대문디자인프라자(Z.하디드), 아셈무역센터(SOM) 등 우리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건축물을 살펴 볼 수 있다.

금번에 구성된 산·학·연·관 T/F팀(팀별로 팀장 1명, 간사 2명, 팀원 5~7명 내외로 구성)은 국토부, 국건위, AURI 및 민간전문가(학계, 업계, 연구원), 관련단체(건축사협회, 건축가협회, 새건축사협의회) 등이 고루 참여하고 있으며, T/F팀 운영 과정에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 또한 청취할 계획이라고 한다.

특히, 많은 과제를 한꺼번에 다룸으로써 역량이 분산되지 않도록 개별 T/F팀들은 주어진 과제 해결에만 집중하여 10월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하였다.

T/F팀에서는 공공건축설계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공모 참여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건축설계에 적합한 PQ 기준 마련하는 등 디자인과 기술력을 중심으로 발주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표준계약서를 개선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도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공정한 계약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한, 수요자 중심으로 건축기준 통합을 추진하고, BIM을 활성화 하며, 건축 R&D도 확대하는 등 건축설계 환경 개선과 기술력 향상을 도모하고, 신진건축사 육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홍보 등 건축 문화진흥을 추진하고, 해외시장 및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공유 등 해외진출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금번 T/F 운영으로 산·학·연·관이 협업하여 구체적인 액션플랜의 도출은 물론 실행까지 이어짐으로써 우리 건축설계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세계 TOP5 수준에 진입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T/F에서 논의된 결과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2014.6.5. 시행)의 하위 규정 제정시에 반영될 계획이라고 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인건축사 양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 홍보 등 건축문화진흥을 추진하며 해외 시장 및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라 할 것이다. 건축설계 산업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창조적인 사고가 우수한 건축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정말로 5년안에 세계 TOP5 수준의 건축설계 선진국이 될 수 있을까?

물론 건축설계산업을 살리기를 위해 정부와 업계, 학계, 연구원이 함께 나선다는 것은 무척 감사하고 고마운 일이다. 우선 국내에 수많은 랜드마크 건축물을 발주한 건축주들의 마인드를 어떻게 무엇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다.

T/F팀에서 논의되고 있는 주요 과제를 살펴 보면 정말로 건축설계산업 육성에 대한 의지를 엿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도 표준계약서를 개정하고 설계변경에 대해서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계약 환경 개선은 무척 고무적이다. 그동안 발주처의 횡포 때문에 표현도 제대로 못하고 설계변경의 대가도 요구하지 못하는 현실을 얼마나 자주 보았는가!

그리고 공공건축설계에는 공모방식을 우선 적용하고 공모참여 부담을 완화하여 실질적으로 디자인과 기술력으로 평가하는 제도가 실시되고 있으며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우수한 디자인으로 실력을 평가받는 제도는 무척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수요자 중심의 건축통합기준을 마련하는 방안에도 합리적 당위성이 있다고 본다.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건축통합기준을 마련하게 되면 설계의 질적 향상 및 품질 우위의 시공성도 확보할 수 있다고 본다. 여기에 BIM을 활성화하는 것은 건축설계 환경개선에 향상을 도모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BIM의 준비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균형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신인건축사 양성, 우수건축자산 지정, 건축문화 홍보 등 건축문화진흥을 추진하며 해외 시장 및 글로벌 인재 정보 구축 및 해외진출 지원 방안이라 할 것이다. 건축설계 산업은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산업이다. 창조적인 사고가 우수한 건축으로 이어지는 결과는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토교통부에서도 신인건축사를 발굴하기 위해 신인건축사대상을 제정한 일은 무척 다행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건축문화 홍보를 위해 건축영화제에 지원을 하는 것도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앞에 언급된 세계 5대 건축설계 산업분야뿐만 아니라 디자인, 예술 등 모든 분야에서 앞서가는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건축문화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모두의 공감대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시행해서 5년안에 건축설계 산업이 세계5위가 될 수 없더라도 향후 10년, 20년후에는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 주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에게 우리의 건축문화의 자긍심을 널리 알려 우리의 아이들이 대한민국 건축사를 존중하고 대한민국의 건축문화를 사랑하고 이어 한류의 중심이 K-POP, 한식을 뛰어 넘어 한국문화, 한국 건축문화를 세계에 알릴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가져 본다. ■

<sup>1)</sup> 1,000억투자시 부가가치 및 취업유발효과

구분	부가가치 유발효과	취업유발 효과
건축서비스/제조업	900억/626억 (약1.4배)	1,705명/920명 (약 1.9배)